

研究論文

# 조선의 정유(定有)와 고려의 진혜(眞慧) - 두 시대 여대사(女大師)의 비교 -

허 흥 식\*

I. 머리말	IV. 생애의 차이점
II. 조선의 定有大師	V. 역할의 공통점
III. 고려의 眞慧大師	VI. 맺음말

## I. 머리말

女大師란 남성이 아닌 여성의 大師란 뜻으로 문집에 실린 용어이다. 이와 상통하는 比丘尼가 있으나, 대사로 고승을 의미하므로 수행과 행실이 뛰어난 모범적인 비구니를 의미하였다. 한국사에서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비구니가 있었으며, 이름을 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비구니는 비구에 비하면 알려진 이름이 적고, 이들 사이의 수효도 비교할 자료가 없다.

대사로 호칭된 비구니는 더욱 적고, 더구나 조선시대에 비문을 남긴 비구니로 定有(1717-1782)가 유일하다. 고려에서 비구니의 묘지가 몇몇 전하지만 대사로 추증된 사례는 眞慧(1255-1324) 뿐이다. 정유와 진혜는 조선과 고려의 비구니로서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의 정유와 고려 후기의 진혜는 다른 두 시기를 살았으므로 이들의 생존 시기는 500년의 차이가 있으며, 세속의 배경과 활동에서 차이점도 있으나 공통점도 많으며, 특수한 여성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한국중세사 전공.

상으로 주목할 소재이다.

정유를 여대사라 부르기는 이름난 관인의 비문에서 확인되고,<sup>1)</sup> 진혜대사는 국가로부터 追封한 시호이다.<sup>2)</sup> 정유대사란 국가로부터 받은 호칭이 아니지만 재상으로 명성이 있던 학자의 문집에 실린 용어이므로 공정성을 가질 정도의 평가가 포함되었다고 하겠다. 아직 이들의 호칭이나 생애의 차이점과 역할의 상통점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비교한 논문은 없다.

불교를 수용한 이래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의 대부분 시기에 비구니 전용의 공인 사원을 확보하였다는 근거는 없으나, 적어도 고려말부터 淨業院이 설치되었다.<sup>3)</sup> 광복 후에는 비구니가 세우거나 주지한 선원과 사원이 생겼고, 그 수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정유와 진혜의 생애와 역할은 주목할만한 대상이라 하겠다.

진혜와 정유에 대한 서술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첫째, 정유는 성리학이 주도적인 사상이던 조선 후기에 비문이 남겨졌으므로 비구니의 묘지가 몇몇 남은 고려 후기의 진혜보다 더욱 특이한 대상이다. 진혜가 앞선 시대를 살았으나 정유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불교가 성하였던 시기에 활동한 진혜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둘째, 두 여대사가 각 시대에 남긴 생애와 행적은 비구니로서 특수하기보다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살았던 행적은 각각 다른 시대의 흔적이고, 공통점도 있지만 사회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애는 물론 역할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인간의 행적이 모범으로 평가되었더라도 다른 시대에서 보면 지탄받을 대상이 많다. 이는 각 시대의 가치가 달랐음을 의미하며 시대가 만든 인문환경이 명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 대한 평가란 어느 시대나 수긍되는 객관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시대에 따라 차이가 불가피하지만, 고매한 품성을 지니고 모범적인 행실이 있으면 시대의 편견을 벗어나, 가치가 존중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사관이란, 그 시대의 보편적인 평가가 반영되기 쉽지만 때로는 시대의 한계를 극

1) 『樊巖集』 권 57, 「女大師定有淨屠碑銘」; 『韓國文集叢刊』(236)(민족문화추진회, 1999), 558쪽.

2) 李蘭映(編), 『韓國金石文追補』附錄 중앙대출판부, 1967), 278~279 쪽

3) 李起雲, 「조선시대 왕실의 比丘尼院 설치와 信行」, 『歷史學報』, 122(2003).

복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한다는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조선의 定有大師

儒學은 삼국시대로부터 교육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지배층의 교양이었다. 宋에서 유학은 성리학으로 전환하여 사상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고려 후기에 수용되었으며 조선초 주도적 통치이념으로 강화되면서 점차 국가의 예제와 결합하여 종교의 기능을 사회로 확대하였다. 16세기 후반에 서원의 사액과 뒤이어 역불에서 黽鄴로 유교는 지방사회까지 기반을 확보하였다.

17세기는 성리학의 전성기였고 18세기 후반에 西學으로 불린 천주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일부 지식인에 한정된 미미한 정도였고 성리학의 전성기는 계속되었다. 불교는 임진왜란에서 淸虛休靜(西山大師)의 활동을 계기로 국방에서 승군의 역할이 공인되었다. 17세기 전반에도 明에서 淸으로 왕조의 교체기에도 승군의 역할은 돋보였으며, 한성을 남북으로 수호하는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은 승군에 의하여 축성되고, 그들에 의하여 유지와 보수가 계속되었다. 양반의 확산으로 군역을 담당할 일반 양인의 비율이 축소될수록 천인에 가까운 멸시를 받던 승군은 국방에서 역할이 강화되었다. 임진왜란 이래 승군의 지휘자는 국가로부터 관직을 받았다.

불교가 성하였던 신라와 고려에서 문한관이 고승의 비문을 짓거나 쓴 사례는 다반사였지만, 조선초부터 급격하게 줄고 거의 폐지되었었다. 17세기부터 고승의 무덤에 해당하는 부도에 대한 비문을 유학을 닦은 문한관이 남기는 사례가 다시 나타났다. 18세기에도 고승의 비문을 성리학을 닦은 관인이 남긴 사례는 증가하였고, 18세기 말에 유학자 樊巖 蔡濟恭(1720-1799)은 10년간 재상을 역임하였고, 그가 몇몇 고승의 비문을 썼던 사실은 이상하지 않다.

소수의 고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구들이 멸시를 받았던 시대에 유학자 체제 공이 비구가 아닌 비구니의 비문을 지었던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樊巖集』에 실린 여대사 비문은 비문자료집에도 실렸으나,<sup>4)</sup> 번역된 일이 없으므로 번거롭지만 전문을 읽기 쉽게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대사 정유의 부도명이고, 서문을 곁들이다

대사의 속성은 姜氏이고 평양의 양가집 따님이다. 성품이 차분하고 맑았으며(恬淨) 일반 사람의 욕심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부처와 조사에 마음을 두었고 파나 마늘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불경을 외우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뜻을 세워 이름난 산수를 문지방 넘듯이 자주 찾았다. 밤을 쫓개어 복두성에 절하고 방안에 들어와 참선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으나 졸지 않았다.

1775년 내가 평안도 관찰사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대사가 나를 방문하였다. 내가 “먼 곳에서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서 사느냐”고 물었다. 대사가 “저는 관서의 백성이고, 어른께서 베푼 은택(관찰사 재임시 선정)은 끝이 없습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라지만 한 번 찾아뵙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감사하였다. 그리고 나의 집에 머물며 나의 집사람을 도와 어머님을 모시면서 수개월 머물다가 떠났다. 다음해도 그랬고 또 다음해도 그랬으며 용모가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내가 집사람을 잃고 명덕산에 머물 때에 대사가 찾아와서 “승인 快浩와 모자의 인연을 맺고 늙은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쾌호를 나에게 인사시켰다. 나는 春星堂을 청소시켜 대사와 쾌호를 머물게 하였다. 밤이 깊어 지팡이에 의지하여 연못을 거닐면서 나무가 우거진 사이로 바라보면 외로운 불빛이 창문을 밝게 비추고 때로는 낮게 때로는 또렷하게 불경을 읽는 목소리가 소나무 사이와 골짜기사이로 부는 바람소리와 어울려 들렸으므로 대사께서 잠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문득 이야말로 산 속에 사는 즐거움이라 깨닫고 기뻐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께서 옷을 갖추어 입고(倣裝)와서 “장단의 華藏菴)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려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을 하였을 때 대사는 이미 60세가 넘었으므로, 내가 대사를 위로하며 “꼭 그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라고 은근히 만류하였다. 대사는 “죽을 날이 멀지 않은데, 가서 열반에 들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지 못할까 염려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뵈울지 기약이 없

4) 智冠(編), 『韓國高僧碑文總集』(伽山佛敎文化研究院, 2000), 554~555쪽.

5) 경기도 長湍에는 대표적인 사원으로 華藏寺가 있었으며 이곳에 공민황의 초상화와 指空이 가져왔다는 梵茨이 있었다. 정유는 여승이므로 화장사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속암에 있었으므로 화장암이라 기록되었다고 짐작된다.

어 슬픔니다”라고 하였다

화장암으로 떠난 지 몇 달 후에书信이 와서 알리기를 “저는 어느 날 머리를 깎았고, 법명은 定有이며, 대법사는 律菴食活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임인년(1782년) 11월 15일에 대사께서 입적하니 66세를 살았고, 火葬하니 사리구슬이 나와 漈호가 관서의 七星菴으로 옮겨 탑에 모시고자 나에게 글을 청하기로 사실을 기억해서 기록하였다.

내가 무술년(1778년) 여름 사신으로 연경을 다녀올 때 밤에 淸川江을 건넜다. 대사께서 평양으로부터 200리를 건너 강을 건너 마중을 나왔으며 서로 보니 몹시 반가웠다. 배에 올라 수박을 깎아 주셨으니 그 정성을 어찌 잊겠는가. 훗날 나에게 재앙을 면하여 주고자 깊은 산에 들어가 목욕재계하고 새벽까지 신령께 기원하였으며 백일을 채우고 그쳤다니 그보다 더한 정성으로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죽으면 아무도 이를 전하지 못하겠기에 나는 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서 마음에 새긴다.

어찌 이승은 고해이고 저승은 정토라 하는가

무덤을 싫어하고 다비를 원했지만

땅에 묻히나 불태워지나

무(無)로 돌아가기 마찬가지이고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말하노라

천지 세상만사는 바랄 일도, 싫어할 일도 없으니

석가모니를 뵈오면

제 말씀으로 물어 주십시오.6)

6) 大師俗姓姜 平壤良家女也 性恬淨無人欲 自少 歸心佛祖 口不近葷血 喃喃誦貝葉書 以忘晨夕 意至行來名山水 若滄闕 然夜分必庭北斗 入室面壁 寂然若坐 睡實非睡也 英宗乙未余納關西節 歸終南舊第一日師請謁 余問曰 遠來良苦 意何居 師曰關西民 被老翁恩澤無終極 身雖女人乎 安得不一來謝 仍侍吾室 貞敬零夫人 留數月以去 明年如之 又明年如之 其容不少倦 余嘗盡室居 明德山中師來言 以僧快浩者 結爲母子 老身庶可有托 仍引快浩見 余掃春星堂 使師與快浩者留 每夜深倚杖光影池上 望見萬木叢翳中 孤燈炯然照窗 經聲或高或低 與松風澗響相答應 可知師不眠也 余喜曰 此山居奇事 未幾師淑裝 曰將長湍之華藏庵祝髮爲僧 從此辭時師年已六十餘 余慰之曰 何自若乃爾 師曰死不遠 至願在涅槃 不祝發不得如願 仍泣下曰 後期有無以是悲耳 後數月在華藏庵 有書曰 已於某日祝發法名曰定有大法師曰律菴食活云 壬寅十一月十五日 師化去 臘六十六 及涅槃舍利珠跳出 快浩將安塔於西北之七星庵 乞余文以記其副事 其 念余戊 戊夏 使燕還夜渡淸川江 師自平壤徒步二百里 待我於舟中 相見喜

여대사 부도비의 내용은 거의 전부가 찬자의 생애와 관련된 특징이 있다. 대사는 속성이 강씨로 평양인이고 양가 따님이었다고 밝혔고 생애는 찬자를 찾은 이후의 관계가 특히 많이 실렸다. 대사의 생애는 찬자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사생활에도 유대를 가지기 전후와 출가와 입적의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대사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하여 찬자인 체제공의 생애를 비교하는 연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찬자와 대사의 유대는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처리한 민정에서 비롯되었다. 평양의 주민인 양가 따님이란 사실 이외에 대사의 속연에 대하여 더 이상 내용이 없으나 이 비문의 주인공은 찬자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대사는 양가 따님이었다는 범상한 묘사이고 그 이상은 확실하지 않다. 강씨가 출가하기 앞서 승인 쾌호와 모자의 인연을 맺었다는 인관관계도 유교의 윤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곡절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대사의 생애는 3단계로 구분되며, 찬자와 만나기전 대사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생략되었고 이후 찬자의 생애와 관계만 실었다. 대사의 극적인 공간은 찬자의 공적인 직무와도 관계가 있었다. 찬자가 평안도 관찰사를 사직하고 돌아온 시기에 대사는 찬자를 찾아 선정을 감사한 다음 몇 개월씩 찬자의 가사를 도와주고 돌아가기를 3년간 계속하였다

4년째에는 찬자가 燕京에 사신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대사가 청천강을 건너 마중 나왔다. 다음해에는 찬자는 벼슬길에 문제가 생겨 명덕산에 은거하였고, 찬자는 춘성당에 출가한 쾌호와 출가하기전 대사를 안주시켰던 셈이다. 이후에 명덕산 춘성당을 떠나 대사가 출가한 시점이 또 하나의 분기점이다.

甚 剖西瓜以進 其意何可忘也 後又爲余禳災 入深山齋沐 達曙禱神 盡百日乃止 觀其意事 可以益余 死亦無辭 嗚呼 於今世何可復得也 余不忍負師 強疾而爲之銘 銘曰 此界何苦 西方何樂 棺槨何厭 荼毘何欲 無問棺槨與荼毘 歸於無畢竟奚問 吾故曰盈天地百千萬事 無可願亦不可願 歸謁釋迦牟尼 試以吾言問之

- 7) 『樊巖集』 권 38, 「祭亡失貞敬夫人權氏文」; 『韓國文集叢刊』(236), 558 쪽
- 8) 『樊巖集』 권 37, 「祭僮人張德良文」; 『韓國文集叢刊』(236), 162 쪽
- 9) 『樊巖集』 권 54, 「庶子弘愼墓誌」; 『韓國文集叢刊』(236), 517쪽. 체제공이 60세에 얻었고, 8세에 唐疹으로 明德第에서 죽었으며, 2월 17일이었다
- 10) 『樊巖集』 권 35, 「祭亡室貞敬夫人權氏文」; 『韓國文集叢刊』(236), 182쪽. 결혼 후 35년간 살고, 체제공의 이씨에게 출가한 누이의 소생 5남매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두 명의 첩이 낳은 각각 1인씩의 아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홍원을 계후하였을 때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하였고 회상하였다. 서자 弘愼이 죽었을 때는 친자식을 잃은 듯이 슬퍼하였고, 너무 슬퍼한 나머지 병이

<표 1> 정유와 채제공의 연보비교

정유	채제공
姜氏 평양 양가녀. 1717년생	平康蔡氏. 1720년 홍성에서 출생 성장 藥山 吳光運을 스승으로 삼음. 姜樸으로부터도 배움. 1735년 향시 합격. 1736년 吳弘運의 딸과 결혼. 1751년 1월 부인 오씨 죽음. 삼척으로 유배 1752년 안동 권씨와 재혼 슬하에 자식이 없음. <sup>7)</sup> 1758년 오광운의 집으로 이사. 1762년 모친상. 1764년 부친상. 1767년 10년간 살았던 僊人 張德良이 죽음. <sup>8)</sup>
1775년 채제공을 찾아 사례하고 수개월 머무름.	1775년 평안도 관찰사 서얼에게 구타당한 사건 있음.
1776년 위와 같음.	1775년 서자 弘謹을 얻음.
1777년 위와 같음.	
1778년 번암이 청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중에 청천강에서 조우.	
1779년 명덕산 春星堂에 머물음. 같은 해 화장사 律菴食活을 대법사로 출가. 법명은 定有.	1779년 벼슬에서 물러나 明德山으로 옮김
1782년 11월 15일 66 세로 열반	1782년 병조판서에 올라 마포로 옮김 1786년 8세의 서자 弘愼을 잃음. <sup>9)</sup> 모는 평양인 金氏. 1787년 재취 貞敬夫人 安東 權氏 줄. <sup>10)</sup> 1792년 18세의 서자 弘근의 죽음. <sup>11)</sup> 1799년 채제공의 죽음(정조 23년).

들었다고 하였다. 채제공은 자신과 초취가 물일 무덤을 미리 만들었고, 특히 먼저 간 서자를 가까운 곳에 묻었고, 서자가 환영하리라고 말하였다. 권씨가 졸하였을 당시 54세였고, 채제공은 68세였다.

11) 『樊巖集』 권 38, 「祭亡庶子弘謹文」, 『韓國文集叢刊』(236), 188쪽. 이때 홍근은 18세였고, 진혜에 결혼하였다. 채제공은 庶從姪의 弘得의 아들로 7세인 자를 양자로 삼아 홍근의 처와 채제공의 첩실인 홍근의 모를 의지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이것이 온전할까 걱정하면서 애통하였다. 이 글에서 채제공은 자신의 나이가 56세가 되어야 서자 홍근을 낳았고, 서자 홍신은 이후에 다른 첩실에

관인의 연보란 주로 공적인 삶과 이를 좌절시키는 시련이 실리고, 이에 못지않게 가족도 중요성이 있다. 찬자의 성장 공간은 충청도 洪城이었고, 그를 지도한 藥山 吳光運은 장인 吳弘運과 사촌이었다. 그가 17세에 결혼하여 15년이 지난 32세에 오씨와 사별하였고 다음 해에 재취로 권씨와 결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 후에 오광운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첫째 부인에 대한 사모의 정이 끈끈하게 계속되었다고 하겠다. 대사가 찬자를 해후한 시기는 59세였고, 대사보다 찬자는 3년의 연하였으므로 56세였다.

대사와 찬자와는 異性이므로 내외의 구분이 철저하였던 시기에 이들 사이의 연령과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찬자의 가정을 부부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자. 찬자는 정실부인의 자식을 두지 못하였고, 첩실과의 사이에만 56세야 처음으로 자식을 두었다. 이보다 앞서 찬자는 부인오씨와 사별하기 전해 1750년 南擘으로 임무를 받아 떠날 때 오씨는 육칠 개월의 임신중이었다.<sup>12)</sup> 다음해에 후사를 두지 못하고 오씨와 사별하였다. 다음 해인 1752년 안동권씨를 재취로 맞이하였으나 권씨와도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찬자는 누이동생이 남편과 사별하고 남겨놓은 자식 5남매를 찬자의 부모와 힘을 합쳐 거두었으나, 누이동생도 곧 사망하였다. 재취인 권씨는 이들 5남매를 자신의 자식처럼 거두었고, 그 가운데는 장애자까지 있었다. 찬자의 겸인(家政管理人) 장씨는 찬자의 부모가 돌아갈 때까지 수발을 들었고, 3년 후에 겸인도 죽었다. 첩으로 평양인 김씨와 다른 첩으로부터 각각 아들을 두었다. 권씨는 이를 투기하지 않고 그들 소생을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웠다고 한다.

대사가 찬자를 처음 찾았던 1775년 찬자의 가정은 권씨와 평양출신 김씨의 소생이 있던 시기였고 벼슬을 사직하였었다. 대사는 겸인 장씨가 세상을 떠난 자리를 메우면서 권씨를 도왔다고 하겠다. 권씨는 자식이 없었으나 찬자보다 14세가 젊었으므로 42세였고, 첩은 출산하였으며 찬자가 56세였고 대사는 59세로서 이성

---

서 낳았으나 그보다 먼저 죽었음이 확실하다. 홍근은 체제공을 계후한 홍원이 과거의 발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새벽부터 궁궐문밖에서 기다렸고 저녁에 급제소리에 말이 뛰어서 말에서 떨어져 골절하였으므로 더욱 체제공의 마음을 쓰리게 하였다. 체제공은 홍근이 편액의 글씨를 썼다거나 계후한 홍원에게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주려하였다고 애석하게 여겼다. 국조방목에 의하면 체홍원의 생부는 敏恭으로 1792년 방목의 병과 말석으로 급제하였음이 확인된다.

12) 『樊巖集』 권 38, 「亡室贈貞敬夫人吳氏遷葬破墓告由文」; 『韓國文集叢刊』(236), 180쪽.

으로써 매력은 없었던 연령이었다. 찬자는 60세에 明德山에 은거하였고, 대사는 찬자가 머물던 경내의 春星堂에 머물렀던 시기는 63세였다. 대사는 그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으나 기간은 확실하지 않다. 대사는 죽음을 3년 앞두고 출가를 알렸다. 화장사로 출가하였고 대법사 律菴食活이 은사였고, 화장사와 명덕산은 같은 경기도에 있었다.

대사는 짧은 삶을 남기고 출가하였고, 찬자는 완곡하게 만류하였으나 출가할 뜻을 막을 수는 없었다. 대사는 출가 후에 찬자를 위하여 100 일간의 기도를 마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쾌호가 사리를 수습하여 대사의 고향에 가까운 묘향산 칠성암에 부도를 마련하려고 찬자를 찾았으며, 찬자는 부도비를 지었고 이를 문집에 남겼다. 찬자는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병조판서로 벼슬길이 열리고, 이후 10년간 재상으로 한동안 영의정도 역임하였다.

### III. 고려의 眞慧大師

대사의 행적은 묘지로 전해 왔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안정복은 개성부근의 묘지 여러 점을 판독하여 전하였고, 진혜의 묘지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sup>13)</sup> 대사는 단지 문벌의 배위로 널리 알려졌고,<sup>14)</sup> 이들 묘지는 친인척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친족에 속하는 개인의 생애를 담았으므로 여러 차례 자료집에 실리고 번역되었으나,<sup>15)</sup> 대사로 추증된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논문은 없었다.

진혜가 포함된 친인척은 문벌귀족에 대한 글에서 관심을 끌었으나,<sup>16)</sup> 여러 비구니의 하나로서 주목되었을 뿐이다.<sup>17)</sup> 대사의 법명은 性曉였고, 진혜대사란 입적한 다음에 국가로부터 추봉된 시호이다. 그는 부계와 모계는 모두 고려의 문벌이

13) 安鼎福, 『雜同散異』(亞細亞文化社, 1981), 257쪽.

14) 李蘭曠(編), 『韓國金石文追補』(중앙대출판부, 1967), 278~279 쪽

15) 김용선, 『역주고려묘지집성(하)』(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736~741 쪽

16) 朴龍雲, 「高麗時代의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分析: 高麗 貴族家門 研究(2)」, 『韓國史論叢』, 3(1978).

17) 김영미, 「高麗時代 比丘尼의 활동과 사회적 지위」,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 1집(2001).

고 왕실과 통혼할 정도로 귀족에 속하였다. 그녀는 14세에 결혼하였고, 배위는 彦陽人 金胙이었다. 부계나 모계, 그리고 배위의 가문에서 대대로 급제자가 속출하고 재상에 올랐을 정도의 일급문벌이었고, 47세에 남편과 사별하였으며 4남3녀를 두었다. 결혼할 무렵 무신집권의 마지막 실권자의 집안에서 청혼하였을 정도로 성품과 미모가 뛰어났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그녀는 출가 전에도 신앙심이 깊었으며 남편과 사별한 후에 더욱 불심이 돈독하여 재산과 정성을 기울여 불사를 도왔다. 그녀는 61세에 출가하여 70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불교사적을 답사하고 청정한 생활을 하였으므로, 비문의 찬자는 일천년에 한번 나올 정도의 훌륭한 여대사였다(姆範陵遲千載聞)고 칭찬하였다. 대사의 생애를 연대별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세 : 1255년 (고종 42년) 許珙의 장녀로 태어남.
- 14세: 1268년 결혼, 彦陽人 金胙과 결혼 4남3녀를 둠
- 47세: 1301년(충렬왕 27년) 夫의 사망.
- 48세: 1302년 無極이 江淮에서 돌아오자 흠모하여 法要를 들음
- 50세: 1304년 鐵山紹瓊이 江南에서 오자 그로부터 大乘戒를 받음
- 57세: 1311년 (충선왕 3년) 彌勒大院을 찾음. 涅槃山과 淸涼山을 답사.
- 61세: 1315년 출가 법명 性曉, 戒壇師는 白修
- 62세: 1316년 통도사를 찾아 사리 12매를 얻고 鷄林을 답사
- 66세: 1320년 개경 남산에 자리 잡고 초당을 지음
- 70세: 1324년 (충숙왕 11년) 2월 11일 병이 나타남. 3월 4일 입적 4월 묘지를 지음.

이상과 같이 대사는 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 14세에 결혼하였고, 47세에 부군과 사별할 당시에 4남 3녀를 두었다. 남편인 김변은 1248년에 태어나 처보다 7세 연상이었고, 54세에 사망하였다. 고려 후기의 평균수명은 천인을 포함하면 43세이고, 양인은 46세로 환산되었으므로, 18) 묘지를 남긴 인물답게 평균수명을 넘겨 살았다고 하겠다.

---

18)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亞細亞文化社, 1981).

대사의 친정은 동모형제가 5인, 이모형제가 4인이었고, 부군의 同氣(형제자매들)와 자신이 출산한 자식이 공교롭게도 모두 4남 3녀로 일치하였다. 이들은 문벌을 지탱하는 출산력도 떨어지지 않고 많이 낳아서 좋은 환경에서 잃지 않고 키웠다고 하겠다. 그녀는 남편과 살았던 34년과 사별하고 23년을 더 살았으며, 생애의 마지막 비구니였던 경력이 진혜대사란 시호를 받은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하겠다.

대사의 생애는 여성으로 세속의 생활과 출가 후 비구니 생활로 구분이 가능하다. 출가 후의 생활은 61세부터이므로 만년의 10년간에 불과하다. 부군과 사별한 후에 세속생활을 포함한 시기의 신앙생활과 불사의 지원과 불교사적지의 답사가 돋보인다. 굳이 시기를 구분하면 결혼 전과 부군의 사별을 기점으로 삼아 출가 전 세속에서 신앙생활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후의 출가를 준비하는 적극적인 단계와 비구니생활을 합쳐서 살펴보면 좀더 간편하다. 묘지에는 대사의 친정과 부군, 그리고 자식과 그들의 이력이나 통혼관계에 대하여 묘지로서 소상할 정도로 정리한 다음, 그녀의 성품과 행적을 정리하였다. 진혜의 가계는 부계와 모계, 부군의 가계, 형제가 모두 문벌과 귀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 계: 父 配享功臣 許珙, 대대로 과거급제, 대대로 재상과 문한직을 가짐

조모계: 仁州 李氏로 왕실 다음의 귀족이었던 때가 있었음.

모 계: 尹瓘의 후예, 최대 문벌의 하나 대대로 급제와 공신

夫 君: 彦陽人 金珽으로 재상이었고, 문한관과 무반직을 겸함.

형제 9인: 다수가 급제, 셋째 동생의 아들과 여섯째 여동생이 왕실과 통혼.

자녀 7인 1남 倫 급제

2남 瑀

3남 淸悟大師 玄扈- 감은사주지

4남 如燦 승과에 장원, 가지산 선사

1녀 夫는 李季誠

2녀 童女(貢女)로 선발됨

3녀 夫는 元善之

고려에서 문벌의 형성 조건으로 부계로는 자손이 많고, 급제자가 속출하고 공신

이 있어서 음서의 대상이 넓어야 한다. 다음으로 인척에도 과거급제자와 공신이 있어야 재산과 지위의 상속에 도움이 되었다. 문벌 중의 문벌은 왕실과 통혼하였고 왕족종실의 구성원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였다. 원에 굴복한 다음에는 공녀나 볼모(質子, 또는 禿魯菴)로 시달리기도 하였으나 한편 외세를 이용하여 실권에 기름을 부어준 결과가 되었다. 불교사원은 사교와 금융과 문화활동의 공간이었으므로 출가자는 이를 돕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사는 빠짐없이 귀족조건을 고루 갖춘 핵심에 위치한 여성이었다.

47세에 夫君과 사별하였다지만 34년 간의 결혼생활에서 4남 3녀를 두었다. 그녀의 부군은 사거할 당시 54세였으며, 1등 공신으로 재상직과 문한직과 상장군을 겸한 실권자의 하나였으므로 7남매를 두었던 부귀를 겸한 중년의 귀부인이었다. 묘지의 찬자는 金開物로 대사의 인척이었다. 대사는 부군과 사별하자 재산을 아끼지 않고 추모를 위한 불사에 투여하였고, 출가를 전후하여 불사와 불적의 답사를 계속하였다. 묘지는 미덕을 찬미한 전기이고, 객관적 서술이 아니란 한계도 있다. 특히 품성이나 불사의 기부행위 등은 윤색되기 쉽다. 재력의 일부를 보시하고 면죄부를 얻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경이나 삼국유사에는 가난한 신도의 마음에서 우러난 보시를 높이 평가하여 警鍾을 울린 기록도 적지 않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의 품성에 대한 기록은 더욱 윤색되기 쉬우나 출생 시기와 가정환경을 종합하여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 대사의 출생과 14세에 결혼하기 전의 성품에 대한 다음 기록은 주목된다.

을묘년(고종 42, 1255)에 태어났는데 성품이 정숙하고 신의가 있으며 아름답고 조신하였다. 어려서부터 놀아도 태도가 특이하였고 소녀의 시기에 품성이 드러나서 여러 차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녀는 최항의 집권기였던 부친이 23세였을 때에 태어난 장녀였다. 그녀가 4세이었을 때 부친 허공이 崔滋가 고시관인 과거에서 급제하였고 가정에 경사가 겹치는 듯싶었다. 그녀가 자라자 林衍이 자식인 惟茂와 결혼시키려 하였으나, 권신의 장래를 염려하고 김변에게 출가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위기에 처했던 사실은<sup>19)</sup> 대사의 묘지에 실리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녀가 결혼하였던 1268년부터

1270년까지 임연이 실권을 장악하고 그가 꺼리던 많은 문신을 제거하였다. 허공은 제거의 대상이었으나 부인(대사의 모친)의 죽음으로 장례 때문에 수도에서 떨어져 있었으므로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났다. 그녀가 결혼 후 부군과 사별하기까지 가정을 이끌어간 태도를 보여주는 묘지의 다음 글이 참조된다.

14세에 결혼하자 남편을 섬기고 음식이나 길쌈에 힘쓰면서 아내의 도리를 다 하였다.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려하면 典章을 적지 않게 알아서 돕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에 대하여, 어려서 아직 분별력이 없을 시기에 곧 각자 마땅한 業으로 가르쳤다. 일찍이 말하기를“ 남자는 삼가고 경계하지 않으면 음험하고 부정하게 되어 쓸모없으며, 여자가 삼가고 경계하지 않으면 도리에 벗어나고 편벽된 곳으로 스스로 쏠리게 된다”라고 티일렀다 부인의 절조와 격려가 이와 같았으므로 온 가문의 모범이 되어 가정이 번영하게 되었다.

남편을 사별하고 장례와 제의, 그리고 추모불사에 대한 그녀의 활동에서 특성이 드러난다. 다음은 묘지에서 인용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신축년(충렬왕 27, 1301)에 부군이 먼저 작고하자 부인은 몹시 슬퍼하였으며, 나라에서 베푸는 儀式을 사양하고 스스로 장례도구를 마련하여 大德山の 남쪽 언덕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장례가 끝나자 묘에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서남쪽에 집을 짓고, 이곳에서 1리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절을 지어 명복을 기원하는 곳으로 삼고 感應寺라고 이름을 지었다. 집안의 재화와 보물을 모두 털어서 승려를 청하여 圓頓經을 寫經하였는데, 금과 은을 섞어 글씨를 썼다. 그 밖에 일으킨 佛事는 기록하지 않겠다.

47세에 홀로 되었으나 초하루와 보름의 제사에는 반드시 몸소 묘소에 갔으며 3년상을 치르면서 아무리 춥거나 덥더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뒤에도 명절의 제사 때에는 나들이를 삼가고 몸소 처음과 같이 지키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스님이 된 다음에야 그만두었다

19) 『高麗史』 권 103, 열전 許珩

부군을 추모하기 위한 불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그녀는 불교에 더욱 심취하여 스스로 고승의 법회에 참석하여 법요를 듣거나 수계를 받으면서 신앙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불교 유적을 찾으면서 순례와 예불을 통하여 자신을 수련하였고, 마침내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다음은 그의 묘지에서 실린 출가하기까지 행적이다.

임인년(충렬 28, 1302)에 無極禪師<sup>20)</sup>가 江淮로부터 배를 타고 오자, 부인은 공경하며 만나서 처음으로 法要를 들었다. 갑진년(충렬 30, 1304)에 鐵山和尚이 남쪽으로부터 와서 교화를 베풀자 나가서 大乘戒를 받았다. 신해년(충선왕 3, 1311)에 집을 꾸러 彌勒大院에 가서 丈六石佛에 예를 올리고 여러 산천을 순례하면서 涅槃과 淸涼 두 곳 山의 성스러운 유적지까지 갔다. 을묘년(충숙 2, 1315)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법명을 性曉라고 하였으니, 戒壇主 白修가 그 스승이다.

병진년(충숙왕 3, 1316)에 通度寺에 가서 사리 12枚를 얻고, 동쪽으로 鷄林의 옛 나라로 갔는데 계림은 장관(壯觀)이 많은 까닭에 여기에서 마음껏 보고 돌아왔다. 다닌 산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유람은 이것으로 그만 적는다. 경신년(충숙 7, 1320)에 개경 南山의 남쪽에 자리를 가려서 草堂을 짓고 머물렀다. 장남의 집이 그 서쪽에 있었으니 지아버가 죽으면 아들을 따르다는 교훈을 본받고자 한 때문이었다.

홀로된 그녀는 불교에 의지하여 불사에 참여하였고, 江淮에서 돌아온 스님은 호가 無極으로 고려 출신의 混丘로 짐작되며 철산은 강남의 고승이었던 몽산의 계승자로 고려 출신이라는 증거가 있다. 蒙山은 休休庵에서 명성을 떨친 고승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중국의 불교계에는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고승이었다.<sup>21)</sup> 대사의 입적과 국가에서 진혜대사로 추봉한 사실은 묘지에 다음

20) 본문에는 “無”라 하였으나 처음의 판독자가 한 글자를 빼어 놓았거나 묘지의 조성시에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 무극은 混丘가 蒙山和尚으로부터 받은 호이다.

21) 南權熙, 「筆寫本 『諸經撮要』에 수록된 蒙山德異와 高麗人物들과의 交流」, 『圖書館學論集』, 21(1994); 許興植, 「高麗에 남긴 鐵山瓊의 行蹟」, 『韓國學報』, 39(1985); 許興植, 「蒙山德異의 行蹟과 年譜」, 『韓國學報』, 71(1994); 許興植, 「蒙山德異의 念佛話頭, 염불과 화두의 접목」, 『문헌과 해석』, 8(1999); 許興植, 「蒙山德異의 著述과 生涯」, 『書誌學報』, 15(1995); 許興植, 「蒙山德異와

과 같이 실렸다.

泰定 원년(충숙왕 11, 1324) 2월 11일에 병이 들자 향년 70 세로 이 해 3월 4일 경인일에 초당에서 세상을 떠났다. 임종할 때에도 말씀이 어지럽지 않고 행동이 평소와 같았다. 담당 관리가 부음을 알리니 그 절의가 한결같이 국가의 제도를 따랐으므로 찬탄하고, 卞韓國大夫人 眞慧大師로 추봉하였으니 드문 일이다. 이 해 4월 초 4일에 선영에 함께 장례지내고자 하니, 선영에서 서쪽으로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잡아서 남편을 따르려는 부인의 뜻을 따랐다.

#### IV. 생애의 차이점

정유와 진혜의 두 여대사에 대해서는 부도비와 묘지가 중심된 기록이고 이들 두 여대사와 관련된 약간의 자료가 있을 뿐이다. 묘지나 부도비는 모두 금석문에 속하는 문체이므로 제한된 돌이란 공간에 실어야 하고, 서술은 銘이란 압축된 운문을 풀이한 서문에 해당하는 산문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금석문이란 찬자와 피전자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있고, 이를 부탁받으면 불미한 사실은 숨겨야 하는 한계도 있다.

이들 두 여대사는 각각 5백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살았으므로 차이점도 적지 않다. 우선 정유는 양가의 따님이란 사실 이외에 뚜렷하게 부각된 가문의 배경이 실리지 않았다. 세속의 여성이 출가한 쾌호와 모자의 인연을 맺었던 사실도 석연하지 않다. 쾌호가 정유의 인척일 가능성은 있으나, 관찰사 체제공이 정유에게 베푼 선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실리지 않았다.

출생에서 진혜는 문벌귀족으로 부러움이 없을 듯 싶으나 사실은 조금 다르다. 부는 본래 첫 부인과 사별하고 둘째 부인은 처제의 딸이었고 집에서 길렀던 이종 조카이었다. 이는 처와 사별하면 처제와 결혼하는 전통과 관련지를 혼속이고, 이 점도 역시 진혜대사의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도 결혼에 권신의 요구와 갈등으로 부친이 위기에서 떨어야 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

曹溪宗法統, 『南豐鉉教授華甲紀念論文集』, 71(1994).

그녀가 가정을 더욱 모범으로 관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진혜는 동복의 형제 5인 이복의 형제가 4인으로 모두 9인이었다. 이복 여동생은 원종의 아들 平壤公 暉에게 출가하였다가 사별하고 다시 충선왕의 順妃가 되었다. 이와 같이 복잡한 가족 구성을 극복하여 셋째 동생 嵩의 아들 琮이 壽春翁主와 결혼하여 왕실과 중첩된 통혼 관계를 맺었다. 더구나 둘째 딸이 동녀로 선발되어 생이별을 하였고, 47세로 남편을 여의고 7남매의 자식을 키워야 하였다. 아들이 둘이나 출가한 경위도 겹으로 화려하지만 시련이 심한 문벌귀족의 불행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신앙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결국 두 아들의 출가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정유의 가정에 대해서 비문에도 침묵되었고 찬자와의 관계만 나열되었으며 전체의 내용도 간단하다. 이는 정유가 귀족의 후예가 아니고 세상에 들어낼 당시의 정국과 관련이 없는 일반 백성 출신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두 대사의 이 점이야말로 두 시대의 차이점을 보여 주는 가장 큰 특성이라고도 하겠다. 고려는 귀족일수록 불교에 귀의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고, 이는 곧 당시의 불교가 국교였다는 사회의 단면이라 하겠다. 정유가 살던 시대의 불교란 귀족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국교가 아니라는 사회의 반영이었다.

정유는 결혼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나 진혜는 7남매를 두었다. 진혜의 주위에 번성한 친인척들은 모두 문벌을 이루었고, 동생과 조카는 왕실과 통혼하여 궁궐과도 긴밀하였다. 진혜의 생애는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부군과 가족을 추모한 정성으로 충만하였다. 정유는 친인척이나 가족에 대한 따뜻한 은신처가 없다. 정유가 이튿날 산수를 문지방 넘듯이 답사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의 설명은 구체성이 없다. 정유의 부도가 묘향산 칠성암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사실로 보아 묘향산을 자주 답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녀가 출가한 장단의 화장사도 유명한 사찰이었고 묘향산 보현사와 함께 인도 출신 고승 指空을 추념한 檜巖寺의 외호사원임을 감안한다면<sup>22)</sup> 그녀가 불적을 선별할 안목이 진혜보다 낮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귀족이 아닌 그녀가 갈 수 있었던 불교유적의 공간과 간여한 불사는 진혜에 비하여 초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2)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一潮閣 1997).

진혜가 행장을 꾸려 충선왕 3년에 나섰던 미륵대원이나 열반산과 청량산을 국내의 불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원이 통치하는 넓은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sup>23)</sup> 그녀의 둘째 딸이 동녀로 선발되어 생이별하였고 그녀의 여섯째 여동생이 충선왕의 順妃였으므로 연도에 머물던 충선왕이 지원한 불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곳을 답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24)</sup> 진혜가 통도사에서 사리 12매를 얻었던 사실도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행동이고, 이를 보존한 후속 불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아쉽다고 하겠다.

정유가 수행한 불사는 선명하지 않다. 선정을 베푼 은인의 재앙을 덜고자 백일 기도를 올렸고, 불경을 읽고 북두칠성에게 빌거나 참선도 불사라기보다 자신의 수행에 불과하다는 낮은 평가가 가능하다. 이에 비하면 진혜는 가정의 제례를 주관하였고, 출가 전에도 사별한 부군을 위하여 묘소에 가까이 感應寺란 원찰을 지어서 추천하였다. 이밖에도 寫經僧을 초청하여 금은으로 寫經을 조성하였다.

모두 불심에 돈독하였고 불교를 매개로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였다. 정유가 독경과 참선으로 자신의 수양에 열중하였다면, 진혜는 묘지의 끝에 압축한 명문에서 장부의 기상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듯이 자식의 교육과 불사, 그리고 제례와 넓은 지역의 답사에 남자와 다름없는 과단성이 있었다.

진혜의 출가법사인 白修는 찾아지지 않지만 江淮에서 1302년 無極禪師가 돌아오자 法要를 들었고, 2년 후에 鐵山紹瓊이 강남에서 오자 大乘戒를 받았던 사실도 주목된다. 무극이나 칠산소경은 불교사에서 주목될 정도로 중요한 고승이었다 출가한 후에 통도사에서 사리를 구하였고, 이는 원에 공녀로 갔던 둘째 딸과 고려의

23) 청량산은 국내에도 있고 원에도 있다. 열반산은 국내에서 유명한 곳이 없으므로 원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24) 충선왕의 개혁정치와 재원 활동과 이제현과 만권당에 관한 논문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다만 재위기간 원에 머물면서 불사에 열중한 사실은 최근에야 주목되었다. 특히 元瓘의 묘지와 慧因寺志와 원의 사서와 문집에서 많은 자료가 정리되었다. 張東翼 「新資料를 통해 본 忠宣王의 在元活動」, 『歷史教育論集』, 23-24 합(1999); 金成煥 「高麗時代 墓誌銘 新例 元瓘墓誌銘」, 『韓國文化』, 25(2000); 토니노푸치오니, 「忠宣王代 麗元佛教關係와 杭州高麗寺」, 『韓國思想史學』, 18(2002). 충선왕이 원에 머물 당시에 함께 있었던 왕비는 順妃였고 元瓘의 동생 卿도 禿魯花로 갔다가 무반직으로 숙위하였다고 짐작된다. 진혜의 동생인 순비와 공녀였던 둘째 딸 등이 진혜로 하여금 1311년부터 1314년까지 여행에 나서서 불적을 답사하고 불사를 후원하도록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왕실과 관련된 동생과 조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불사를 계획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녀가 대사로 추증된 경위도 수행뿐 아니라 왕실의 인척이었던 귀족으로 불사를 주관한 사실을 국가가 지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유의 불사와 신앙생활, 그리고 그와 관계가 깊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체제 공을 제외하면 내세울 인물이 없다. 그와 세속에서 모자 인연을 맺었던 快浩는 물론이고 화장사의 대법사 律菴食活도 불교의 계보를 정리한 방대한 자료에도 실리지 않았다.

## V. 역할의 공통점

정유와 진혜는 고려와 조선을 대표하는 여대사로 공통점도 적지 않다. 이들은 만년에 출가하였고 가정에 얽매어 가사를 돌보았다. 우선 생애가 순탄하지 않을 정도로 가정에 시련이 있었다. 진혜의 가정은 어머니를 잃고 이종사촌을 새어머니로 모셨고, 권신이 발호한 무신집권기의 말기에 태어나 14세에 결혼하기 전에 청혼을 거절한 부가 생존이 위험한 처지였을 정도였다. 정유는 적서의 갈등에 휘말렸던 가정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가정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극기심과 근면성, 그리고 자신의 수행에는 두 여대사가 공통으로 뛰어났다고 하겠다.

두 여대사는 60세를 넘어서 출가하여 법명을 얻었으나 어려서부터 불교에 신앙심이 철저하였다. 정유는 어려서부터 파와 마늘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진혜도 성품이 깨끗하였고 행동이 조심스러웠으며 결혼 후에는 음식과 길쌈에 힘쓰고, 제사에도 典章을 알아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한다. 진혜의 경우 47세에 부군과 사별하고 국가에서 베푸는 제례를 사양하고 집에서 설정하여 상례를 마칠 정도였고, 이후에 제례도 스스로 주관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였다. 당시 불교식 의례에 교양과 수련이 철저하였던 품성이 엿보인다. 고려에서 여성이 제례를 주관한 사실이 불복장 자료로 확인되었지만<sup>25)</sup> 진혜의 생애는 이를 뚜렷하게 입증하였다.

진혜가 재력을 기울여 감응사를 짓고 부군을 추천하는 원찰로 삼았으나, 출가

---

25) 濶陽民俗博物館,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の 調査研究』(啓蒙文化財團, 1991).

전이였으므로 그곳의 주지는 비구를 초빙하였다고 하겠다. 출가한 후에도 큰아들이 사는 남산의 집근처에 草庵을 마련하였을 뿐이고 사원의 주지를 맡지 못하였다. 일반 비구니가 아니라 대사로 추봉되었다 하더라도 한계는 뚜렷하였다. 정유의 경우에도 체제공이 여대사라 하였지만 이는 수행의 정도를 존경하여 붙인 호칭이고 사원의 주지를 맡지 못하였다.

이들은 당시 평균 수명보다 장수하였으나 60을 넘긴 나이에 출가하였다. 진혜는 출가 후 9년을 더 살고 70세 입적하였고, 정유는 3년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단정하였고, 청정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이들은 임종에 이르러서도 고승과 다름없이 정신이 맑고 의연하였으며, 흐트러짐이 없었다. 진혜는 큰아들이 살던 가까운 초암에서 임종하였고, 은인이 은거한 명덕산과 정유가 입적한 화장사의 작은 암자는 같은 경기도에 속하였다.

이들의 입적과 다비는 가족이나 가족 관계를 맺었던 인물에 의하여 마쳤다. 정유는 자식으로 결연하였던 채호가 주관하였고, 부도 비문을 세속의 은인이 쓰도록 요청하여 저술하였다. 진혜는 그의 아들이 다비를 주관하고 부군의 묘지를 지었던 인물의 아들로 하여금 짓도록 하였다. 각각의 부도비와 묘지는 세속과 관계가 있었던 묘향산 칠성암과 대덕산 부군의 묘지 가까이 묻혔을 정도였다.

여대사의 생애는 일반 고승보다 세속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출가한 시기도 만년의 짧은 기간이었고, 죽음을 대비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들이 대사로써 활동은 출가하기 전의 연속에 불과하였다. 특히 진혜의 경우는 7남매의 어머니로서 친인척이 모두 왕족이나 문벌이었으므로 귀족으로 손색이 없게 키웠고, 세속의 재력을 출가하기 전에도 불사에 사용하였다.

정유는 부귀한 별족이 아니었으나 자신의 정정한 생활과 은인이었던 관인의 보은을 위하여 몸가짐에 빈틈이 없었고, 틈틈이 은인의 가사를 도왔다. 정유가 출가한 동기도 은인에게 장례의 부담을 없게 하려는 의도였음이 확실하다. 진혜가 살았던 고려 후기에는 전기의 고승보다 세속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강화되었으며, 비구니의 경우에도 속가에 가까운 암자에 머물면서 유대를 강하게 유지하였다는 특성이 비구보다 강하였고 두 여대사의 경우에도 공통이었다고 하겠다.

정유는 진혜에 비하여 불사나 활동이 초라하였다. 본래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

었던 정유는 많은 자식을 보육하고 교육하였던 진혜보다 대인관계의 폭이 좁았다. 단출한 가정에서 성장한 탓도 있겠고 부귀하지 못한 환경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출가한 비구니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불교의 위상이 낮았던 조선 후기 정유의 생활은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 후기의 보다 더욱 청정한 모범을 보였다고 하겠다.

은인이며 유학자인 찬자는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유를 위하여 비문을 남기면서 줄곧 그를 스승(師)이라고 호칭하였다. 정유 부도비의 찬자는 남녀의 내외를 강상으로 삼아 도학이라 일컫던 거추장스런 성리학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유교를 우위로 불교를 멸시하던 갈등마저 벗어버렸다. 다비 후에 나타난 정유의 사리는 여대사의 열반을 영롱하고도 영원하게 장식하였다고 하겠다.

## VI. 맺음말

불교사에는 불교가 수용된 초기부터 여성의 역할이 자주 실려 있다. 阿道の 어머니 高道寧이나 墨胡子를 후원하였던 毛禮의 누이 史氏는 초기의 불교에 여성의 후원이 지대하였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상고의 신화종교에서 여성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고, 고대에도 유리왕의 누이나 天官女 그리고 金現과 탐돌이에 만났던 虎女, 백제의 王妹 등이 국가의 祀典을 주관하거나, 불교로 개종한 여성이었다. 고대에 여왕은 남성의 왕과 달리 즉위하기 전에 관인의 경력은 없었으나, 국가의 祀典을 주관한 경험이 국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다.

비구와 비구니의 수효를 비교할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신라에는 비구니를 관할하는 관직이 있었고, 이는 책임자는 비구니였을 가능성이 있다<sup>26)</sup> 고려말부터 조선초에는 정업원이 설치되었고, 이곳은 전쟁이나 정변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왕족을 포함한 귀족의 미망인이 출가하여 비구니로 머물렀다. 정업원은 ‘院’이라 불렀듯이 비구가 머무는 일반 ‘寺’보다 사원으로서 위상이 낮았다. 위상은 낮았더라도 척분을 주장하던 학자 관인도 탄압하기 어려운 비구니의 청정한 생활이 영위되는 성역의 공간이란 개념이 있었다.

26) 金煥泰, 「百濟의 尼衆受戒와 尼僧職 關係 日本史料와 新羅 및 南朝의 史例中心」, 『文山 金三龍博士 華甲紀念 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원광대출판국, 1985).

고려 후기의 불교계는 정변과 전란으로 사원은 이재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심화되었고 세속과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보조국사 지눌이나 진각국사 혜심, 그리고 보각국사 일연은 노모를 모신 사례였고, 이들 여성은 비구니였거나 독실한 신도였다. 진혜는 고려 후기의 일반적인 여성신도를 대변하는 사례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성 신도가 사원을 후원한 사례는 불교가 번성한 지역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고려에서 보조국사의 저술에 출판비를 도왔던 珍衣金이나<sup>27)</sup>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의 간행을 시주하였던 妙德은 주목받은 사례이다.<sup>28)</sup> 고려말의 고승비나 寺記에는 재가신도인 우바이는 물론이고 비구니의 이름이 아주 많이 실려 있다.<sup>29)</sup> 진혜나 묘덕은 보편적인 사례의 하나일 뿐이지만, 비구니를 대사라 시호하였던 사례로는 다른 예를 찾기 어렵다. 특히 여성으로 원나라의 여러 곳을 답사할 정도로 장부의 기질이라 특기하였지만, 그의 둘째 딸이 동녀로 생이별한 사실이 있고, 동생이 왕비로 충선왕과 함께 원에 머물던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시대상의 단면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불교의 종교적 역할마저 성리학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있었다. 고승 출신의 국사와 왕사는 폐지되었고, 중기부터 士林에서 山林이 성리학을 대변하는 대표적 師表로 추앙되었다.<sup>30)</sup> 조선초에 이르면 점차 학자 관인이 고승비문의 찬자로 등장하는 사례가 적어지고 고승비의 건립은 사라졌다. 청허 휴정을 위시한 고승이 조직한 승군의 활동은 조선 후기 취약한 국방력을 보충하면서 고승의 비문을 학자 관료가 지어서 건립하는 사례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불교사에서 커다란 변화였다.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채제공도 고승의 비문을 지은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끌기 어렵다.

다만 유학자가 여대사의 부도비를 지은 사실은 다른 예를 찾기 어렵다. 정유는

27) 金知見(編), 『華嚴論節要』(寶蓮閣, 1968), 459쪽, “施主羅州戶長直升妻珍衣金”

28)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一潮閣, 1997); 이세일, 「直指와 비구니 妙德에 관한 연구」, 『中原文化論叢』, 4(2000).

29) 필자가 조사한 자료로 가장 많은 비구니의 이름이 실린 비문으로는 檜巖寺指空和尚碑와 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鍾碑이고, 神勒寺大藏殿記와, 太古寺圓證國師碑에도 적은 수이지만 실렸다. 고려말에 집중된 현상이 주목된다.

30) 李佑成, 「韓國儒教의 名分主義 및 그 政治的 機能에 關한 一考察 李朝後期の 「山林」에 對하여」, 성균관대학교, 『東洋學學術會議 論文集』, 1(1976).

선정을 베푼 은인을 찾아 3년간 몇 개월씩 찬자의 집에 머물면서 가사를 도왔다. 다음해에는 사신으로 다녀오는 은인을 200리를 걷고 강을 건너 마중하면서 배안에서 수박을 깎아드렸다. 그리고 은인이 은거중인 산중을 찾았고, 은인은 자신이 마련한 같은 경내의 별당에 머물게 하였으며, 연못가를 거닐면서 밤늦게 독경하는 불빛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다. 비문에 “서로 만나 매우 기뻐다(相見喜甚)” 거나 “이 세상 어디서 다시 이런 대사를 만날 수 있으리오(於今世何可復得也)” 라고 회상하였다. 이들의 만남은 50대 후반이었고 3년 연상의 여성이었으므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였다고 하겠으나,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와 유불의 구분을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엄중하게 강상으로 지켰던 시기에 체제공과 정유는 그 한계를 벗어버리고, 각각 불교와 유교의 수도자로 관계를 실현하고 서로 인정하였다고 하겠다.

고려와 조선에서 아무리 여대사의 호칭을 얻었던 비구니라도 사역된 사원의 주지를 맡은 사례는 없었다. 이들은 어린 나이로 출가하지 않았고, 가정을 충실하게 유지하면서도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였다. 조선 후기 정유의 경우에 결혼과 세속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 불충분하나 사회 사업에 충실하였던 여러 비구니의 만행을 전한 사례를 보면 낮은 사회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근면과 성실, 그리고 검소하고 청정한 세속의 생활은 출가한 비구에 못지않은 선행을 지녔다고 하겠다.

두 시대 여대사는 세속의 생활에 충실하였고, 출가한 다음에도 비구보다 가정이나 세속의 인물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세속에 있을 시기에도 죽음과 관련된 상제례나 은인의 가정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가사를 도왔다. 두 여대사의 생애에서 불교에 귀의한 신도로서 재가생활이 철저하였고, 특히 독신으로 생활은 출가를 막론하고 모범을 보였다. 이들의 출가란 자신의 죽음을 열반으로 이끌면서 의지로 관리하려는 마지막 정리였다. 여성의 출가란 노년이나 불우한 처지에 불교를 매개로 자신을 관리하려는 수단이었으므로 스스로 마련한 복지공간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은 출산과 가정유지라는 역할에 강하게 얽매었고, 남성은 국방과 사회활동에 몰두하는 역할 분담이 뚜렷하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출가한 연령이 늦은 늦깎이가 대부분이었으므로,<sup>31)</sup> 비구니로서 활동은 열반을 준비한 노년

31) 김용선, 『고려금석문연구』(일조각, 2004), 343쪽.

의 짧은 시기에 불과하였다. 淨業院이나 安逸院, 大小西院 등의 주지라 하더라도 사액의 伽藍이 아닌 蘭若에 불과하였다고 하겠으며, 이는 비구니를 위하여 스스로 마련한 양로원이었다고 하겠다. 오늘날 여성은 20 세를 전후한 미혼의 젊은 청년기에 출가하는 사례도 많고, 독립된 대찰의 주지를 포함하여 불교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상황이므로 전통시대보다 향상된 격세의 느낌마저 든다.

전통시대의 비구니는 출가 전부터 과중한 가사에 충실하면서도 시간을 아끼어 품성과 신앙심을 가꾸었고, 자신보다 가족이나 주변을 위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봉사하였으므로 보살행이라 불릴 만하다. 보살이란 대사의 단계를 지나 부처의 직전에 위치한 완벽에 가까운 수행자를 일컫는 호칭이었다. 석가를 제외한 최고의 수준에 이른 고승이 베푸는 萬行의 단계이므로 오늘날의 비구들이 세속의 여성신도를 보살이라 호칭하는 관습을 보고 필자는 의아하게 들었다.

비구들의 세속 여성신도에 대한 보살이란 호칭은 자신의 부족한 수행에 대하여 자책하기 위한 수행이라면 타당하겠으나 때로는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진혜와 정유가 보여준 출가 후의 발자취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지만, 세속에서 보낸 청정한 생활이야말로 국가나 재상으로부터 큰 스승(大師)이라 불릴만하고, 오늘날의 비구가 여성신도를 보살이라 불리는 전통의 기원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 참고문헌

『高麗史』.

『樊巖集』.

金成煥, 「高麗時代 墓誌銘 新例- 元羅墓誌銘」.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韓國文化』 25, 2000.

金煥泰, 「百濟의 尼衆受戒와 尼僧職 關係: 日本史料와 新羅 및 南朝의 史例中心」. 『文山 金三龍博士 華甲紀念 韓國文化와 圓佛敎思想』. 이라: 원광대출판국, 1985.

金知見(編), 『華嚴論節要』. 서울: 寶蓮閣, 1968.

김영미, 「高麗時代 比丘尼의 활동과 사회적 지위」.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 1 집 2001.

김용선, 『역주고려묘지집성(하)』.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_\_\_\_\_, 『고려금석문연구』. 서울: 일조각, 2004.

- 南權熙, 「筆寫本『諸經撮要』에 수록된 蒙山德異와 高麗人物들과의 交流」, 『圖書館學論集』21, 1994.
- 李佑成, 「韓國儒敎의 名分主義 및 그 政治的 機能에 關한 一考察 李朝後期の「山林」에 對하여」, 성  
균관대학교, 『東洋學學術會議 論文集』1, 1976.
- 朴龍雲, 「高麗時代의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 分析: 高麗 貴族家門 研究(2)」, 『韓國史論叢』  
3, 1978.
- 安鼎福, 『雜同散異』,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 溫陽民俗博物館, 『1302년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研究』, 서울: 啓蒙文化財團, 1991.
- 李起雲, 「조선시대 왕실의 比丘尼院 설치와 信行」, 『歷史學報』122, 2003.
- 李蘭映(編), 『韓國金石文追補』, 서울: 중앙대출판부, 1967.
- 이세일, 「直指와 비구니 妙德에 관한 연구」,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中原文化論叢』4, 2000.
- 張東翼, 「新資料를 통해 본 忠宣王의 在元活動」, 慶北大 歷史教育學會 『歷史教育論集』23-24 합  
1999.
- 智冠(編), 『韓國高僧碑文總集』,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2000.
- 토니노푸치오니, 「忠宣王代 麗元佛教關係와 杭州高麗寺」, 韓國思想史學會 『韓國思想史學』18,  
2002.
- 許興植, 『高麗社會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1.
- \_\_\_\_\_, 「高麗에 남긴 鐵山瓊의 行蹟」, 『韓國學報』39, 1985.
- \_\_\_\_\_, 「蒙山德異와 曹溪宗法統」, 『南豐鉉教授華甲紀念論文集』71, 1994.
- \_\_\_\_\_, 「蒙山德異의 行蹟과 年譜」, 『韓國學報』71, 1994.
- \_\_\_\_\_, 「蒙山德異의 著述과 生涯」, 『書誌學報』15, 1995.
- \_\_\_\_\_,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一潮閣, 1997.
- \_\_\_\_\_, 「蒙山德異의 念佛話頭 염불과 화두의 접목」, 『문헌과해석』8, 1999.

● 투고일 : 2004. 8. 23

● 심사완료일 : 2004. 11. 24.

● 주제어(keyword) : 정유대사(定有大師, Jungyu) 진혜대사(眞慧大師, Jinhe) 여대사(女大師,  
Nun Preceptor) 사회사(Social History), 여성사(History of Woman),  
여성역할(Role of woman), 신앙생활(Lives of Belief).